

# 근대기 일본 ‘중세(中世)문학’의 형상 창출 연구 - ‘일본문학사’와 ‘일본사’의 대조를 통해 -

엄인경\*  
uik6650@korea.ac.kr

## <目次>

- |   |                                    |
|---|------------------------------------|
| 1. 시작하며                                 | 4. 제국주의의 전개와 ‘중세’·‘중세문학’<br>형상의 변용 |
| 2. ‘일본문학사’와 ‘정전(正典)’ 연구의 흐름과<br>문제점     | 5. 맺으며                             |
| 3. 국민국가 형성기 일본문학사 속의<br>‘중세’·‘중세문학’의 형상 |                                    |

主 題 語: 일본문학사(Japanese Literary History), 중세 문학(The Middle Ages Literature), 일본사(Japanese History), 국민국가 형성기(Nation-state Formation stage), 제국주의 이데올로기(Imperialism Ideology), 무사도(Bushido)

## 1. 시작하며

근대적 학문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서양에서, 중세라는 시대는 찬란하거나 긍정적 의미가 부여되기 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이미지가 강하다. 예를 들어 “중세의 한쪽 끝에는 찬란한 고대 문명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르네상스가 있다. 이 찬란한 두 문명 사이에 있는 중세의 이미지는 어둠, 곧 암흑기(Dark Ages)이다. 또한 르네상스가 부활이라는 뜻이므로 중세는 ‘죽음’<sup>1)</sup>이라는 인식이 바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르네상스 이래 형성된 서양권의 이러한 인식의 영향 탓인지, 일본에서 1890년대부터 활발하게 간행된 초기 ‘일본문학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중세’라 부르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도 학문적·문화적으로도 부정적인 암흑시대로 인식되고 있었다.

① 게다가 난세와 전국의 상태를 드러냈다. 그러므로 무로마치 세상은 실로 우리나라(=일본)의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1) 김응중(2005)『서양의 역사에는 초야권이 없다』푸른역사, p.263

암흑시대로 학문의 쇠퇴가 이때보다 심했던 적은 없다.)

- ② 쟁란이 하루도 그칠 일이 없어 사람들은 그저 싸움을 일삼기만 하므로 문학 같은 것은 전혀 도외시되었다. -중략- 아시카가(足利)의 암흑시대에 문학의 광휘가 완전히 전란의 먼지 속에 묻혀……3)
- ③ 바야흐로 문학시중의 암흑시대가 도래했다. 암흑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상류자들이 문학에 종사할 여유가 없고 여유가 있어도 규율 없는 글들을 짓고, 자기 일가의 학문을 일삼아 이른바 불문자(不文者)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무학자가 여론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4)

이 인용문 중에서 ①은 1890년 미카미 산지(三上參次)와 다카쓰 구와사부로(高津鍬三郎)가 공저한 일본 최초의 『일본문학사(日本文学史)』에서 인용한 것이며, ②와 ③도 각각 1890년에 쓰인 하가 아이치(芳賀矢一)와 다치바나 센사부로(立花銑三郎)의 『국문학독본(国文学読本)』, 1892년 오와다 다케키(大和田建樹)의 『화문학사(和文学史)』에서의 인용문이고 이 서적들은 일본문학사 기술이 이루어진 초기의 대표적 문헌이다. 그런데 이들 문학사에서 포착하고 있는 중세란 “암흑시대”, 즉 쟁란과 전투로 “문학이 도외시”되어 문학이 가장 쇠퇴했던 시대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국가형성기의 이런 부정적이고 자기가치 폄하적인 ‘중세’ 혹은 ‘중세문학’ 이미지는 현재까지 일관된 시대인식, 문학인식이 아니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

현대에 들어 중세문학에 대한 시선은 고대에서 근대로의 가교로서의 역할, 나아가 “근대의 여명”<sup>5)</sup>까지 찾을 수 있는 신(新)문학으로 인식되었고, 점차 “기존 문학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면과 “동란과 변혁에 의해 생긴 신흥 계층에 지지되어 새로운 문학”<sup>6)</sup>이 발생한 복잡다단한 측면, “중세문학에 있어서의 중세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의연히 미해결”이고 “어찌면 그에 대한 해답은 언제까지고 불가능할”<sup>7)</sup>지 모른다는 미지의 신비한 측면이 강조되면서 “실로 다채롭고 풍요(豊潤)”<sup>8)</sup>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논리 전환은 전후(戰後)의 현대가 낳은 문학사 문제라기보다, 실제로는 이른바 일본 군국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15년 전쟁기에 해당하는 1930, 40년대에 들어서 ‘중세’라는 시대나 ‘중세문학’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평가되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처럼

2) 三上參次, 高津鍬三郎(1890)『日本文学史 下卷』金港堂, p.98

3) 芳賀矢一·立花銑三郎(1890)『国文学読本』富山房, 「緒論」, pp. 5~6

4) 大和田建樹(1892)『和文学史』博文館, p.406

5) 市古貞次 外編(1969)『日本文学の争点』明治書院, p.8

6) 有吉保(1984)『中世文学史』有斐閣, p. ii

7) 久保田淳(1989)『中世文学の世界』東京大学出版会, pp.68-69

8) 稲田利徳 外編(1984)『中世文学の世界』世界思想社, p. i

‘중세’나 ‘중세문학’을 둘러싸고 “암흑”에서 “풍운”으로 완전히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은 왜 일어난 것일까? 이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변화 사이에 내재된 문학사적,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러한 논리 파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문학사 기술과 일본문학의 ‘정전(正典=Canon)<sup>9)</sup>’ 연구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전 연구는 문학사의 총론을 근대국민국가 비판이라는 문맥에 환원시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논의의 시기도 1890년에서 1900년대 초로 한정되어 있다. 관련된 작품 각론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화된 일본 고전의 대표작을 근대의 시대적 문맥 속에서 정전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본문학사’나 ‘정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시대적 편중 현상을 뛰어 넘어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서 패전에 이르기까지 대량으로 간행되었던 ‘일본문학사’와 ‘일본사’를 통해 ‘중세’와 ‘중세문학’의 형상이 어떻게 창출(創出)되고 변용(變容)되었는지를 실제 기술(記述)내용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세’ 및 ‘중세문학’ 이미지가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 부정적이고 가치평하적인 평가에서 1930,40년대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된 논리를 시대적 콘텍스트 속에서 도출하여 일본문학사의 논리 파탄과 그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즉 근대의 학지(學知) 형성에 즈음하여 고전문학의 역할과 변용과정을 근대국민국가의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1890년대에서 1945년에 이르기까지 일본 중세문학 형상의 특징을 해석해 보기로 한다.

## 2. ‘일본문학사’와 ‘정전(正典)’ 연구의 흐름과 문제점

근대기에 만들어진 일본문학사나 역사교과서 속에 중세나 중세문학의 형상이 어떻게 창출되었는지, 나아가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일본문학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된다. 하나는 주로 ‘일본문학사’의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연구인데 최근 들어 이들 일본문학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국민국가와 애국심을 양성하는 자료로 제도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문학사’와 ‘국문학’이라는 관념이 내포한 문제점에 착목한 대표적 연구로 나카야마 아키

9) 鈴木貞美(2009)『「日本文学」の成立』作品社 p.358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는 본 논문의 테마와 관련하여 ‘와비(わび)’, ‘사비(さび)’, ‘유현(幽玄)’으로 대표되는 ‘중세예술’, ‘중세미학’이라는 관념을 성립시킨 것은 서구에서 확립된 ‘예술’이나 ‘미학’ 관념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논증하고 있다.

히코(中山昭彦)의 「문학사와 내셔널리티(文学史とナショナルリティー)」와 사사누마 도시아키(笹沼俊暁)의 『국문학의 사상(国文学の思想)』이 있다. 나카야마는 문학사 서술의 문제를 일본과 외국과의 관계라는 측면, ‘문화제국주의’라는 측면에서 논하며 1890년대와 1900년대 초의 문학사 이데올로기 문제를 탐색하였다.<sup>10)</sup> 사사누마의 경우는 ‘근대일본에 있어서 “국문학연구”라는 사상을 지탱하고 있었던 내셔널한 틀과 구조’를 메이지(明治)에서 쇼와(昭和) 시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증<sup>11)</sup>하였다.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연구 동향은 고전과 전통을 창조된(invented) 것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10여년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전(Canon) 형성사 연구인데 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창조된 고전(創造された古典)』<sup>12)</sup>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서는 일본문학 정전 형성의 패러다임과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주로 『만요슈(万葉集)』나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교육적 커리큘럼의 변화 등 주요 고전작품을 우선시 하여 그것이 근대기에 어떻게 일본문학의 대표적 고전이 되었는지를 논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향은 기존의 문학작품이나 대작가를 중심으로 연구되던 이른바 문학주의에서 탈각하여 문학의 제도성과 이데올로기를 문제시하는 연구로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이다.

‘만들어진’ 문학사와 정전 형성의 고찰과 맥을 같이 하는 선행연구는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는데, 그는 『일본의 「문학」 개념(日本の「文学」概念)』<sup>13)</sup>을 통해 일본의 문학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일본문학사가 ‘발명’되는 과정 및 국민문학론의 변천과 근대문학이라는 관념의 형성과정을 천착하였다. 그리고 『「일본문학」의 성립(「日本文学」の成立)』<sup>14)</sup>을 통해서 『만요슈』,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일본 중세의 ‘미학(美學)’ 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1890년대부터 1910년대에 걸쳐 기술된 대표적 일본문학사의 서술 특성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촉발된 김진선<sup>15)</sup>, 정병호<sup>16)</sup>, 이애숙<sup>17)</sup>의 논고들도 국민국가 형성기의

- 
- 10) 中山昭彦(2002)「文学史とナショナルリティー」『岩波講座近代日本の文化史3 近代知の成立』岩波書店, pp.102-108  
 11) 笹沼俊暁(2006)『「国文学」の思想—その繁榮と終焉—』学術出版会, p.10  
 12)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공편 ; 왕숙영 옮김(2002)『창조된 고전 : 일본문학의 정전 향상과 근대 그리고 젠더』소명출판, pp.1-525  
 13) 鈴木貞美(1998)『日本の「文学」概念』作品社, pp.1-431  
 14) 鈴木貞美(2009), 앞의 책, pp.1-508  
 15) 김진선(2002)「일본 국민국가의 ‘국민’ 형성과 ‘문학사’의 역할」『日本學報』51집, 韓國日本學會, pp.231-246  
 16) 정병호(2007)「근대초기<일본(인)론>의 전개와 <일본 문학사>의 위치」『日本語文學』33집, 日本語文學會, pp.313-332

국민, 국어, 국문학사에 대한 인식이 일본문학사 서술과 어떻게 관련되고 일본 문학의 ‘우미(優美)’함이 어떻게 부상하는지, 주류 문학사와 비주류 문학사가 구분되는 과정과 그 기술의 역사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을 고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문학사의 총론부분을 대상으로 문학사의 편찬 의도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근대국민국가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와 연관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이 놓여 있다. 즉 근대국민국가 비판이라는 전제된 결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문학사와 국민국가의 조응관계는 잘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문학사 내용의 주축을 이루는 각 시대별 문학의 형상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나아가 문학사를 기술할 때 해당 시대, 장르, 문학이념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은 부족하다. 특히 국민국가 형성기의 애국심의 고양,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고양이라는 문학사의 의도와 ‘중세문학’의 부정적 평가라는 비대칭적 기술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일본 중세 문학사와 중세의 대표 작품의 연구사 동향을 다룬 논고도 최문정<sup>18)</sup>, 엄인경<sup>19)</sup>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전자는 고대와 중세, 근대의 특성을 구분짓고 일본역사의 무력적 요소나 신화와 주술성, 호색적 요소의 교착을 지적하며 원령사상, 신불습합이 강화된 중세의 경향을 다루었고, 후자는 ‘일본의 논어’로 자리매김한 『쓰레즈레구사(徒然草)』의 향수사와 연구사를 통해 중세에서 근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평가의 변천을 고찰한 것이다. 이 계통의 정전(正典) 연구는 ‘만들어진 고전’이라는 측면에서 고전 문학작품들이 근대기에 들어와 대표적 문학작품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에 대한 논증이 중심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시대적 문화사조, 독자들의 수용, 연구자들의 새로운 가치부여 등에 따라서 개별 작품이 어떻게 대표적 고전으로 자리매김 되었는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으나 고전 작품들이 정전화, 제도화되는 기반을 제공하였던 19세기 말 일본문학사나 일본사 등에 대한 기초연구는 등한시되고 있다. 또한 고대(古代, 上代), 중고(中古), 중세(中世), 근세(近世) 등 시대별 문학이 어떻게 단위지어 배치되었는지, 이러한 시대구분에 어떠한 의식이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시각은 매우 부족하다. 마쓰모토 신스케(松本真輔)가 유일하게 일본문학사에서 ‘중세’라는 표현이 정착된 시기와 범주를 살펴보고 일본 중세시대의 여러 언설과 문학 장르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sup>20)</sup>으나, 일본의 중세 역사와 문학사가 상호침투적인 영향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야에 대한 충분한 비교고찰을 통해 ‘중세’ 혹은 ‘중세문학’의 표상을 논하지 못한

17) 李愛淑(2008)「일본문학사 기술의 역사와 국제화」『日語日文學研究』6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145-165  
 18) 崔文正(2001)「古代의 論理에 關涉있는 日本 歷史와 文學史」『日本學研究』8집, 단국대 일본연구소, pp.5-42  
 19) 엄인경(2008)「창조된 고전으로서의 『쓰레즈레구사(徒然草)』」『日本研究』9집, 고려대 일본학연구소, pp.125-145  
 20) 松本真輔(2002)「일본문학사와 중세-혼란스러운 중세 언설 세계의 현실」『日本思想』4집, 한국일본사상학회, pp.59-82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국문학 중심의 일국문학 연구경향과 폐쇄적인 작품연구라는 기존의 문학주의 연구경향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흐름을 수용하고, 근대기에 들어와 문헌연구와 역사연구가 분절되고 고립되는 과정, 고전연구와 근대문학연구가 이질의 연구영역이 되어버린 현상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문학과 일본역사 연구의 공통된 새로운 영역 설정과 고전문학 연구와 근대문학 연구의 결합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본 ‘중세문학’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3. 국민국가 형성기 ‘일본문학사’ 속의 ‘중세’ · ‘중세문학’의 형상

1890년에 미카미 산지(三上參次)와 다카쓰 구와사부로(高津鍬三郎)의 공저 『일본문학사』가 간행된 이후 일본에서는 “문학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 계절 속에서 스스로 문학 정립을 추구하여 문학사가 출발<sup>21)</sup>하는 문학사 기술의 계절이 전개되며 국문학사(國文學史)·화문학사(和文學史), 또는 일본문학사라는 이름으로 대량의 문학사가 편찬된다. 많은 경우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간행된 이들 ‘일본문학사’는 국어라는 언어 사상에 토대하여 일본의 역사와 전통(민족)문화, 그리고 문학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를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sup>22)</sup>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문학사’는 1890~1900년대 초 문학과 문학사가 교육계 내에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 개념을 형성하는 한 축을 담당했으며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sup>23)</sup> 역사교과서 쪽에서도 역시 당시 천황을 중심의 국민국가에 걸 맞는 역사 재편을 목적으로 다수의 서적이 간행되는데 이를 통해 국사(=일본사)의 교육은 근대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당시 ‘근고(近古) 문학’ 혹은 ‘가미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 문학’, ‘중세문학’<sup>24)</sup> 등으로 불린 중세문학은, 헤이안(平安) 시대로 대표되는 고대문학이나 에도(江戸)시대로 대표

21) 平岡敏夫(1982)「解説」『明治大正文学史集成3 明治文学史』日本図書センター, p.2

22) 大和田建樹(1892), 전게서, p.11에서는 문학사 기술 이유를 “애국심 양성의 원소”라고 보고 있고, 三上參次·高津鍬三郎(1890), 전게서, p.6에서는 “국가 애모의 관념”을 양성하는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23) 鈴木貞美(1998), 전게서, p.221

24) ‘중세문학’이란 용어는 1908년 후지오카 사쿠타로(藤岡作太郎)가 지은 『국문학사강화(国文学史講話)』에 의해 최초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사의 시대구분이 역사의 시대구분을 원용하고 있다는 사고방식과 달리 ‘중세’라는 용어는 ‘일본사’에서보다 ‘일본문학사’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다.

되는 근세문학에 비해 시대에 관한 가치부여에서건 문학적인 가치부여에서건 상대적으로 부정적 시대로 포착되었다. 예를 들면 서론에서 제시했던 일본문학사 외에도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초에 간행된 다음과 같은 일본문학사의 중세에 관한 기술항목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 ①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역사상의 혼란시대로 전란이 틈도 없이 이어지고 태평 무사한 날이 적어 상하 모두 무도(武道)에 전념하니, 평화의 세상을 장식해야 할 문예가 자연히 소외되고, -중략이 시대만큼 문예가 쇠퇴한 때도 없다.<sup>25)</sup>
- ②-1 그 요란(擾亂) 60여년에 이르렀으므로 문학이 크게 쇠미(衰微)하여 또한 옛날 같은 유(類)가 아니었다.
- ②-2 그 간 태평무사했던 날은 얼마간도 없었으므로 문학이 진흥되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sup>26)</sup>
- ③ 이 시대(鎌倉室町幕府の世)는 이와 같이 문학 쇠미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는데.....<sup>27)</sup>
- ④-1 왕정의 쇠퇴와 더불어 대학 국학의 제도가 점차 쇠퇴하며, 상하 일반에 호학(好學)의 무리가 적어지고.....
- ④-2 전쟁은 문학의 숙적인데 겐코(元弘)의 난 이래로 병란이 이어지고-중략-문물이 쇠퇴하는 운으로 기울었다.<sup>28)</sup>
- ⑤ 문학을 흥기시키려는 마음이 적었으므로 이 시기는 내내 문학상에 불만한 것이 적다. 문학은 은둔자 혹은 승려의 손으로 옮겨갔다.<sup>29)</sup>

여기에서 말하는 ‘암흑시대’나 ‘문학극쇠(文学極衰)’라는 말은 중세문학을 대표하는 용어로 정착되었고, 특히 ③의 경우는 “문학극쇠”<sup>30)</sup>가 기술하는 내용의 절(節) 제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다양한 문학사에서 “문학을 흥기시킬 생각이 적었으므로 가미쿠라 및 무로마치 막부를 통해 문학사상 볼 만한 것이 실로 궁핍하다”<sup>31)</sup>는 식으로 기술되며 부정적 평가로

---

25) 藤岡作太郎著(1908)『国文学史講話』富山房, pp.167-168. 후지오카 사쿠타로(藤岡作太郎)는 이 서적을 통해 가미쿠라 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를 중세(中世)라고 처음 지칭하였으며, 중고와 근세 문학이 일본 문학 양대 전성기이며, 중세 시대 내내 문예의 암흑시대로 간주하였다.

26) 鈴木弘恭(1892)『新撰日本文学史略』青山堂, p.208, p.231

27) 藤岡作太郎(1901)『日本文学史教科書』開成館, p.62

28) 関根正直(1899)『日本文学史』, p.73, p.75

29) 笹川種郎(1901)『中等教科日本文学史』, p.49

30) 藤岡作太郎(1901), 전계서, p.59

31) 内海弘蔵(1900)『中等教科日本文学史』明治書院, p.49. 또한 이 책에서는 중세, 특히 무로마치 시대의 문학에 대해 “우리 국사에서 최암국(最暗國) 시대로 칭해지고-중략-문학은 대개가 쇠미의 극에 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이는 ‘일본문학사’ 내의 기술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 당시 간행된 ‘일본사’에서 중세 시대와 관련된 항목에서 시대인식이 ‘일본문학사’와 거의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 ① 왕정의 쇠퇴와 더불어 대학 국학의 제도가 점점 피폐해지고 상하 일반 호학(好學)의 무리가 적으며, -중략 그저 전승되는 설을 묵수(墨守)하며 궁리 응용의 기상이 결핍되었으므로 학문은 마침내 세운진보(世運進歩)에 쓸모 없어졌다.<sup>32)</sup>
- ②-1 왕조정치가 쇠퇴함에 이르러 문학도 마침내 쇠퇴하고 -중략 고상하고 정지(精緻)한 이론을 강설하는 교양은 당시에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 ②-2 전란의 세상으로 문학 교육이 진흥되지 않은 것은 분명 이 때이다.<sup>33)</sup>
- ③ 진무(神武)천황의 개벽 이래로 아시카가(足利) 시대처럼 일본인이 타락한 적이 없었고, 아시카가 시대처럼 모든 일이 혼란의 극을 달한 적이 없었다.<sup>34)</sup>

이들 ‘일본사’ 관련 서적에서 중세라는 시대에 관한 인식은 ‘쇠퇴’, ‘피폐’, ‘타락’, ‘혼란’이라는 용어가 지적하듯이 상당 부정적이었지만 흥미로운 점은 모두 국학이나 교양의 쇠퇴와 더불어 ‘문학’의 쇠퇴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좁은 의미의 문학뿐만 아니라 학문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의 20세기 전후 당시 문학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점에서 이들 ‘일본사’는 상당 부분 ‘일본문학사’와 서로 시대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기 애국심의 양성과 문화 내셔널리즘의 구축이라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들 ‘일본문학사’에서 ‘중세’ 및 ‘중세문학’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가치 폄하적 논리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중세문학’의 실체성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이외는 관련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먼저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서양의 중세관이라 할 수 있다. 서론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서양의 중세관은 당연히 ‘암흑시대’로 인식되고 있었고 서양문학사의 영향이 투영된 일본문학사<sup>35)</sup>는 이러한 시대구분 의식이 그대로 작용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32) 関根正直·池辺義象編(1893)『日本史要』大倉書店, pp.29-30

33) 萱場今朝治編(1903)『日本史要 中等教育』吉川弘文館, p.70, p.89

34) 伊藤銀月著(1906)『闇黒日本史』隆文館, p.2. 이 책의 「서론(序論)」(pp.1-18)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伊藤銀月)는 『암흑일본사』에서 “일본사 중에서 최암흑(最暗黒)”의 시대로 “아시카가(足利)씨 15대, 대략 250년간”을 선별하여 그 간의 사적을 논하고 있다.

35) 일본 최초의 문학사인 미카미와 다카쓰의 『일본문학사』에 이미 ‘서양각국의 문학사와 문학서의 체재를 참고하고 이를 절충참작’(三上參次·高津鏹三郎(1890) 전게서(『日本文學史上』「緒言」 p.6)했음을 밝힌 곳을 보면 ‘일본문학사’ 편찬에 서양문학사의 인식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지오카 사쿠타로의 『국문학사강화』에서 중고, 근세문학이 양대 전성기이고 중세문학은 암흑시대라고 규정<sup>36)</sup>한 논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음은 일본문학사가 제시하고자 하였던 일본근대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의 문학사나 일본사에서는 하나 같이 학문과 문학 쇠퇴를 언급할 때마다 ‘왕정의 쇠퇴’와 무사계급 등장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지산천이 아름답고 예로부터 생활 상태도 훌륭했다.-중략 만세일계의 황통을 받들고 신을 존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풍부하고 기질이 쾌활하며 지력 풍부하여 미를 사랑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것이 마치 천품(天稟)의 성격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sup>37)</sup>

이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당시 일본문학사는 일본문학의 우수성을 일본의 자연, 일본인의 성품과 만세일계의 천황가와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천황가 쇠퇴를 그 특징으로 하는 ‘중세’와 ‘중세문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당연히 이 시대를 암흑기 시대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중세문학은 서양이라는 거울을 통해 일본을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애국심을 호소하는 국민국가의 논리에 입각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배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제국주의의 전개와 ‘중세’·‘중세문학’ 형상의 변용

지금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문학사’, ‘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근대국민국가형성기인 1890년대, 1900초년대의 일본 ‘중세’, ‘중세문학’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근대 일본이 지향한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당시 ‘중세’와 ‘중세문학’이 매우 부정적이고 암흑기에 해당하는 시기이자 쇠퇴한 문학으로 형상화된 배경에는 당시 천황제 가족주의국가와 연동된 근대국민국가의 논리와 일본이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1870년대 이른바 서구의 실증사학이 일본에 도입되면서 『젠페이조스이키(源平盛衰記)』,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다이헤이키(太平記)』 등과 같은 현재의 문학텍스트들이 역사적 영역에서 배제되면서 역사는 “고증과 서양 역사의 실증”<sup>38)</sup>이 중시되어 문학과 역사는

36) 藤岡作太郎(1908), 전게서, pp.9-13

37) 池谷一孝(1897)『日本文学史』東京専門学校, p.12

각각 배타적인 영역으로 제도화된다. 그러나 앞 장에서 고찰해 보았듯이 비록 ‘일본문학사’와 ‘역사서’는 그 기술대상과 영역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국민국가 형성기에 ‘중세’와 ‘중세문학’에 대한 인식은 상호 소통하고 있었다. 이는 근대학문 이후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 ‘문학’과 ‘역사’의 교섭관계가 명확히 하나의 시야에 넣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1890년대와 1900년대의 ‘중세’, ‘중세문학’의 부정적 이미지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더욱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실제로 1930,40년대의 ‘일본문학사’를 보면 부정적 이미지는 불식되고 “저력의 신흥문학”<sup>39)</sup>, “의지(意志)의 문학”<sup>40)</sup>, “무사도와 서민상”<sup>41)</sup> 문학의 성립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긍정적 이미지의 강조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중세’, ‘중세문학’의 새로운 변용은 단지 1930년대 이후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1910년대에 “한문과 국문은 점차 서로 혼화되어 외래문화의 감화와 국민본래의 특질이 한층 융합”<sup>42)</sup>시키는 화한혼효문(和漢混濬文)이라는 문학의 수단이 헤이안(平安)시대보다 중세가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식으로 그 변화가 감지된다. 예를 들어 하가 아이치(芳賀矢一)의 저서들에서는 중세 화한혼효문의 우수성 때문에 한어의 미덕이 평가되면서 헤이안보다 중세 문학이 우수하다는 인식의 맹아마저 포착하고 있다. ‘일본사’에서도 “극기, 제육의 정신”을 강조한 무사도(武士道)를 평가하며 “가마쿠라 시대는 우리(=일본) 국민의 특색, 즉 국민성이 명백히 사회 표면에 드러난 시기로 우리 국가사회의 건전한 면목을 드러”<sup>43)</sup>냈다고 보았다. 즉 무사도가 두각을 나타내는 중세를 국민의 이상이자 예도(芸道)를 중시한 사색적인 시대로 보고 무인(武人)사회의 특징을 강한 은의(恩意)의 관념이라 해석하는 등 ‘가마쿠라 시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무사도와 연결되면서 먼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중세를 “암흑리(暗黒裡)의 저력”<sup>44)</sup>이라면서 중세=‘암흑시대’라는 인식을 불식하려는 노력과 이 시대를 “전통과 신흥의 공존”<sup>45)</sup>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은 1930년대 이후 보다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문학사’와 ‘일본사’의 ‘중세’, ‘중세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은 이 당시 일반화되었는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成田龍一(2002)『総説時間の近代—国民=国家の時間』『岩波講座近代日本の文化史3 近代知の成立』岩波書店, p.11

39) 垣内松三(1933)『国文学体系』不老閣書房, p.182

40) 増子懷永(1936)『日本文学史新講』同文社, p.129

41) 山本正秀(1943)『日本文学史 上巻』三笠書房, p.247, p.261

42) 芳賀矢一(1913)『国文学史概論』文会堂書店, p.65

43) 萩野由之(1934)『日本史講話』明治書院, p.325. 1934년 판본에 의한 인용이지만 식어(識語)에 따르면 이 책은 1920년 저술이다.

44) 垣内松三(1933), 전게서, p.173

45) 山本正秀(1943), 전게서, p.239

- 가마쿠라 시대부터 400년 정도를 문학의 암흑시대라고 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sup>46)</sup>
- 가마쿠라 시대는 헤이안 시대의 반동으로 의사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다. 무사도를 낳아 민심에 영향을 주고 불교를 발흥시켰고 -중략- 이 시기 문학은 점차 국민적 성질을 띠게 되었으며.....<sup>47)</sup>
- 중세의 무사도는 무사의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이자 국민의 이상이다. 육체보다 정신을 존중하는 사상으로 이성에 따르는 점, 사색적인 정신의 문제를 다른 중세에는 예도(芸道)도 중시됨.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유형적이고 사색적이며 평론적인 시대로 평가된다.<sup>48)</sup>
- 중세의 복잡성은 전통과 신흥이 공존하고 중세 작가들의 특이성과 은자문예의 발달에 기인한다. 종교주의, 무사도, 신불교사상, 서민적 요소, 유겐 등의 중세적 이념 역시 매우 복잡하다.<sup>49)</sup>

그렇다면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1910년대 이후 ‘일본문학사’, ‘일본사’에서 그 이전에 형성된 일본 중세, 혹은 중세문학의 부정적 이미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용되어 새로운 가치부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고찰해 보자.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와 한국 강제병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이 당시부터 ‘일본문학사’는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여러 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문화 제국주의라는 큰 문맥으로 ‘절합(節合)’되어”<sup>50)</sup>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문학은 고대 이래 일본적인 문학요소 뿐만 아니라 서양문학, 인도문학, 중국문학, 그리고 서양문학을 ‘동화(同化)’ ‘융합’하여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가장 특수한 문학을 구축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해간다. 이 또한 어느 면에서는 일본 문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논리가 단지 일본문학 내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문학을 내포한 일본문학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제국주의’인 셈이니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세예술’, ‘중세미학’이라는 관념도 서구에서 확립된 ‘예술’이나 ‘미학’ 관념에 기초하여 “다이쇼(大正)에서 쇼와 전전(戰前)기에 걸친 중세미학 예찬 움직임은 전중(戰中)기에 그것을 ‘일본적인 것’의 핵심으로 하는 방향을 취”<sup>51)</sup>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중세를 ‘암흑기’로 규정하고 중세문학이 일본문학사에서 최고의 쇠퇴기를 규정해 온 데 대한 반작용, 또한 고대로부터 일본문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심화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에 의했을

46) 垣内松三(1933), 전게서, pp.169-170  
 47) 増子懷永(1936), 전게서, p.93  
 48) 久松潜一(1937)『日本文学史講話 上』國民教育會, pp.31-35  
 49) 山本正秀(1943), 전게서, pp.228-229  
 50) 中山昭彦(2002), 전게글(「文学史とナショナルリテイー」), p.102  
 51) 鈴木貞美(2009), 전게서, p.382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1940년대 태평양 전쟁기에는 일본 “국문학”을 그대로 “외지”에 “확대·보급해”가야 한다는 ““국문학”의 ‘보편화’”가 주장<sup>52)</sup>되어 일본역사는 물론 각 시대 일본문학의 본원적인 특징과 우수성에 대한 논리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렇듯 세계문학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문학을 보유한 ‘일본문학사’의 재구축 필요성이 이 시기 ‘중세’, ‘중세문학’을 재편시켜야 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3장에서 보았던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의 부정적인 ‘중세’, ‘중세문학’ 이미지는 상당히 개선되어 일본문화사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논리를 통해 긍정적이고 불교적, 은자적, 상무(尙武)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문학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란의 시대 전투의 이야기를 다루는 군기 모노가타리(軍記物語)가 중세를 대표하는 특별한 장르이자 일본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체로 인식되었고<sup>53)</sup>, 또한 복잡한 동란의 현실에서 한 발 떨어져 은둔자의 사색과 자성, 철학을 담아낸 수필 작품들도 중세의 주요 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즉 일본은 대단한 국민적 서사시와 깊은 성찰의 습관을 소유한 문화적 우수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중세’, ‘중세문학’은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의 이미지와는 달리 새로운 제국주의적 논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변용되어 간 것이다.

## 5.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890년대 이후 국민국가 형성기의 ‘일본문학사’와 ‘일본사’에서는 ‘중세’는 매우 부정적이고 암흑기에 해당하는 시기이자 ‘중세문학’도 매우 쇠퇴기였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에 들어선 이후 이러한 부(負)의 이미지는 점진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어 오히려 이러한 이미지와는 대별되는 긍정적이고 상무(尙武)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러한 ‘중세’, ‘중세문학’의 이미지의 변용에는 문학성 자체의 문제보다는 1890년대와 1900년대 초 국민국가 형성기의 천황제 가족주의국가와 연동된 근대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오히려 일본이 동양의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일본문학의 연속성을 강조해야 하는 제국일본 문학의 재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도 일본문학사에서 ‘중세’나 ‘중세문학’을 기술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세문학

52) 笹沼俊暎(2006), 전게서, p.188

53) 대표적 군기 모노가타리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가 국민의 서사시로 근대에 각광받게 된 상세한 과정은 데이빗 바이어록(2002) 『국민적 서사시의 발전 : 근대의 고전 『헤이케 이야기』(平家物語)』(『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pp.135-182)을 참조.

의 실체가 아니라 이를 표상(表象)하는 근대의 시대적 문맥과 이데올로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중세’나 ‘중세문학’ 이미지의 창출과 그 변용과정을 통해 ‘일본문학사’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파탄을 읽어낼 수 있으며 문학사 자체가 근대국민국가의 모순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마쿠라 시대의 문학과 무로마치 시대의 문학이 서로 이질적 성격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남북조 시대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중세’라는 시대 이름으로 묶이게 되면서 ‘중세문학사’의 기술에 파란과 우여곡절이 생기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도 1910년~1945년에 걸쳐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로 침략해 가면서 식민정착을 꾀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세’ 혹은 ‘중세문학’ 이미지, 나아가 ‘중세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담론화되어 유포되었다.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상당한 양의 일본어문헌이 발간되고 있었는데 4장에서 다룬 제국주의 시대의 ‘중세’, ‘중세문학’, ‘중세적 가치’와 관련된 자료를 보더라도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중세’, ‘중세문학’의 이미지는 한반도에서도 확산되어 식민지주의에 적극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반도에서 발행된 일본 ‘중세’와 관련된 주요 서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혼의 정화를 사도(土道)라 칭하고 일본 무사도의 기원과 규범, 선(禪)과 검술의 일치, 옛 일본 무사의 행적 등을 설명<sup>54)</sup>하거나, 일본 고유의 종교 신도(神道)에 관한 논리와 생활적 측면의 결합을 논하며 신도론과 무사도론(武士道論)의 융합을 주장<sup>55)</sup>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반도의 저명 인물 60여명에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를 다루며 다방면으로 문예화된 일본 중세의 인물 및 관련 사항을 다룬 사서(史書)<sup>56)</sup>나 불교, 가마쿠라(鎌倉) 막부, 몽골의 침략, 무사도라는 항목으로 일본의 중세 시대를 다룬 서적<sup>57)</sup>도 출판되었다. 일본의 국체(國體)를 강조하고 대일본은 신국(神國)이라는 논리를 설파<sup>58)</sup>하거나 황국, 즉 천황권에 의거한 나라로서 일본을 규정하며 천황의 치세에 따른 역대의 사건과 문화를 설명한 역사서<sup>59)</sup> 역시 간행된다. 이는 근대국민국가 형성기나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중세’, ‘중세문학’ 이미지가 단지 일국(一國)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시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를 비롯한 식민지로 확산되어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연계한 고찰은 근대초기 자국 중심으로 기술된 ‘일본문학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54) 荒木樂山(1926)『武道大鑑』京城：朝鮮奨武会, pp1-435  
 55) 岡村鉉太郎(1927)『日本古典學派と本然生活』京城：大阪屋號書店, pp.1-105  
 56) 青柳綱(1929)『大日本史談』京城：朝鮮研究會, pp1-910  
 57) 堂本貞一(1931)『世界の日本史論稿』京城：共存社, pp.1-335  
 58) 佐佐木四方志(1932)『神國日本』京城：巖松堂, pp.1-69  
 59) 和田重義(1936)『(歴代文化)皇國史大觀』京城：朝鮮新聞社, pp.1-360

‘일본문학사’에 내재된 논리의 모순이 근대 일본의 문제, 나아가 식민지주의라는 시대적 모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중세’, ‘중세문학’ 이미지의 확산과 유통에 관한 고찰은 문학의 일국주의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 【參考文獻】

- 김용중(2005)『서양의 역사에는 초야권이 없다』푸른역사, p.263
- 김진선(2002)「일본 국민국가의 ‘국민’ 형성과 ‘문학사’의 역할」『日本學報』51집, 韓國日本學會, pp.231-246
- 松本真輔(2002)「일본문학사와 중세-혼란스러운 중세 연설 세계의 현실」『日本思想』4집, 한국일본사상학회, pp.59-82
- 엄인경(2008)「창조된 고전으로서의 『쓰레즈레구사(徒然草)』」『日本研究』9집, 고려대일본학연구소, pp.125-145
- 李愛淑(2008)「일본문학사 기술의 역사와 국제화」『日語日文學研究』6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145-165
- 정병호(2007)「근대초기<일본(인)론>의 전개와 <일본문학사>의 위치」『日本語文學』33집, 日本語文學會, pp.313-332
- 崔文正(2001)「古代的 論理에 包含되는 日本 歴史와 文學史」『日本學研究』8집, 단국대일본연구소, pp.5-42
-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공편 ; 왕숙영 옮김(2002)『창조된 고전 : 일본문학의 정전 향상과 근대 그리고 쟁점』소명출판, pp.1-525
- 靑柳綱(1929)『大日本史談』京城 : 朝鮮研究會, pp.1-910
- 荒木樂山(1926)『武道大鑑』京城 : 朝鮮吳武會, pp.1-435
- 有吉保(1984)『中世文學史』有斐閣, pp. i -iii
- 池谷一孝(1897)『日本文學史』東京專門學校, pp.10-13
- 市古貞次 外編(1969)『日本文學の争点』明治書院, pp.6-10
- 伊藤銀月 著(1906)『闇黒日本史』隆文館, pp.1-18
- 稲田利徳 外編(1984)『中世文學の世界』世界思想社, pp. i -iii
- 内海弘藏(1900)『中等教科日本文學史』明治書院, pp.49-134
- 大和田建樹(1892)『和文學史』博文館, pp.1-406
- 岡村鉉太郎(1927)『日本古典學派と本然生活』京城 : 大阪屋號書店, pp.1-105
- 垣内松三(1933)『国文學体系』不老閣書房, pp.169-182
- 萱場今朝治編(1903)『日本史要 中等教育』吉川弘文館, pp.70-89
- 久保田淳(1989)『中世文學の世界』東京大學出版會, pp.68-69
- 笹川種郎(1901)『中等教科日本文學史』文學社, pp.49-50
- 佐佐木四方志(1932)『神國日本』京城 : 巖松堂, pp.1-69
- 笹沼俊曉(2006)『「国文學」の思想—その繁榮と終焉—』學術出版會, pp.9-11
- 鈴木貞美(1998)『日本の「文學」概念』作品社, pp.1-431
- 鈴木貞美(2009)『「日本文學」の成立』作品社, pp.1-508
- 鈴木弘恭(1892)『新撰日本文學史略』青山堂, pp.208-231
- 關根正直(1899)『日本文學史』, pp.73-75
- 關根正直·池辺義象編(1893)『日本史要』大倉書店, pp.29-30
- 堂本貞一(1931)『世界の日本史論稿』京城 : 共存社, pp.1-335

中山昭彦(2002)『文学史とナショナルリティー』『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3 近代知の成立』岩波書店, pp.102-108  
成田龍一(2002)『総説]時間の近代—国民=国家の時間』『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3 近代知の成立』岩波書店, p.1-21  
芳賀矢一(1913)『国文学史概論』文会堂書店, pp.63-66  
芳賀矢一·立花銃三郎(1890)『国文学読本』富山房, 「緒論」, pp.ら-お  
萩野由之著(1934)『日本史講話』明治書院, pp.325-326  
ハルオ・シラネ編(2009)『越境する日本文学研究—カノン形成、ジェンダー、メディア』勉誠出版, pp.1-141  
久松潜一(1937)『日本文学史講話 上』國民教育會, pp.31-35  
平岡敏夫(1982)『解説』『明治大正文学史集成3 明治文学史』日本図書センター, pp.1-2  
藤岡作太郎(1901)『日本文学史教科書』開成館, pp.62-63  
藤岡作太郎(1908)『国文学史講話』富山房, pp.9-168  
増子懷永(1936)『日本文学史新講』同文社, pp.93-129  
三上參次·高津鋏三郎(1890)『日本文學史 上卷』金港堂, pp.1-11  
三上參次·高津鋏三郎(1890)『日本文學史 下卷』金港堂, pp.97-109  
山本正秀(1943)『日本文学史 上卷』三笠書房, pp.228-262  
和田重義(1936)『(歴代文化)皇國史大觀』京城：朝鮮新聞社, pp.1-360

---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

---

---

 < 要 旨 >
 

---

## 근대기 일본 ‘중세(中世)문학’의 형상 창출 연구

– ‘일본문학사’와 ‘일본사’의 대조를 통해 –

본고는 ‘중세’나 ‘중세문학’을 둘러싸고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부터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암흑’의 시대에서 ‘풍운’의 시대로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을 고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세라는 시대나 중세문학에 대한 이미지 변화 사이에 내재된 문학사적,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러한 논리 파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문학사 기술과 일본문학의 정전(正典) 연구와 관련이 깊지만 이러한 연구는 문학사의 총론을 근대국민국가 비판이라는 문맥에 환원시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논의의 시기도 1890년에서 1900년대 초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각론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화된 일본 고전의 대표작들을 근대의 시대적 문맥 속에서 정전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본문학사’나 ‘정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시대적 편중 현상을 뛰어 넘어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서 패전에 이르기까지 대량으로 간행되었던 ‘일본문학사’와 ‘일본사’를 통해 ‘중세’와 ‘중세문학’의 형상이 어떻게 창출되고 변용되었는지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중세’ 및 ‘중세문학’ 이미지가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 부정적이고 가치편파적인 평가에서 1930,40년대 긍정적 인 입장으로 전환된 논리를 시대적 콘텍스트 속에서 도출함으로써 일본문학사의 논리 파탄과 그 요인을 규명해 보았다. ‘중세’, ‘중세문학’의 이미지의 변용에는 문학성 자체의 문제 보다는 1890년대와 1900년대 초 국민국가 형성기의 천황제 가족주의국가와 연동된 근대국민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오히려 일본이 동양의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일본문학의 연속성을 강조해야 하는 제국일본 문학의 재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일본문학사’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파탄과 근대국민국가의 모순을 내재한 일본의 중세문학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 Study on the Image Creation of ‘The Middle Ages Literature’ in the Japanese Modern Times

– By Comparing between ‘Th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and ‘The Japanese History’ –

In the west, where the modern academic studies began, ‘The Middle Ages’ has the opposite images of the brilliant and positive images. The Middle Ages, between the glorious ancient civilization and the Renaissance, has the images of the darkness, so the Middle Ages could be called the Dark Ages, and it could be also ‘the Death’ Ages because the Renaissance means a revival. Under the influence of this western perception, the early publications of ‘th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which was published briskly since the 1890s in Japan, shows that the Japanese middle ages also has the negative images as the Dark Ages in the history, academy, and literature. This negative and self-depreciative images of ‘the Middle Ages’ and ‘the Middle Ages Literature’, built in the formative period of the nation-state, however, are not consistent up to now.

The shift of the perception of the Middle Ages was made not after war (after 1945) but from 1930s to 1940s when Japan’s militarism reached its climax and Japan was at the 15-year war. By this time, the images of ‘The Middle Ages’ and ‘The Middle Ages Literature’ was changed to the fairly positive viewpoint. In this thesis, to go over the existing disproportionate studies on ‘Th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and ‘The Armistice’, I grasped how the images of ‘The Middle Ages’ and ‘The Middle Ages Literature’ had created and changed through ‘Th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and ‘The Japanese History’ published from the formative period of the nation-state to the defeat, and through this study, by understanding the logic of shifting the images of ‘The Middle Ages’ and ‘The Middle Ages Literature’ in the periodical context, I grasped how the logic of ‘The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went into the rupture and what the causes were.